



2019 SU-ACE+사업 웹소식지

2019 **Vol.2**



삼육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CONTENTS

커리어 오픈 스토리 공모전

1-2

- 프로그램 소개
- 수상자 인터뷰

How to 학습법

3-4

- 프로그램 소개
- 프로그램 내용

삼육 BOOK Story 도서 토크 공모전

5-6

- 프로그램 소개
- 공모전 수상작 소개
- 수상자의 추천 한마디

SUTORY 사전평가단

7-8

- 프로그램 소개
- 활동 후기

삼육도서 100선 프로젝트

9-11

- 프로그램 소개
- 수상작 소개

커리어 로드맵 특강

12-13

- 프로그램 소개
- 담당자 인터뷰

Career Open Story

커리어 오픈 스토리 공모전

01. 소개

최근 삼육대학교 스미스학부대학에서 커리어 오픈 스토리 공모전2를 진행하였다.

커리어 오픈 스토리 공모전은 재학 중 축적한 자신의 커리어를 자유롭게 하나의 스토리로 구성하여 블로그, 카카오토리,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하여 제작 후 URL로 제출하는 공모전이다.

많이 사용하는 SNS를 활용한 공모전이어서 접근성이 쉽고, 자신의 커리어를 소재로 사용하니 흥미롭고 많은 학생들이 쉽게 참여 할 수 있어 2017년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이다.

참여할 때 유의할 점은 커리어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할 때 이력서, 자격증 및 면허증, 참가 증명서 등의 사진을 첨부하여 넣어줘야 하는 것이다.

총 상금 300만원으로 대상 1명 (50만원), 최우수상 2명 (40만원), 우수상 3명 (30만원), 장려상 4명 (20만원)으로 총 10명의 작품이 선정되었으며, 다음장에서 수상한 학생의 인터뷰가 이어질 것이다.



02. 인터뷰



영어영문학과 15학번 ● 이재은

Q.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신 동기가 무엇인가요?

A. 저는 예전부터 ‘커리어 오픈 스토리’ 공모전에 눈길이 갔었습니다. 하지만 1,2학년 때는 구체적인 목표도 없었고, 이런 것을 준비할 만큼의 커리어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졸업을 앞두고 있어, 이번 공모전이 마지막이고 졸업 전 후배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자신의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공모전에 참여하셨나요?

A. 저는 ‘드림스타그램’이라는 제 교직 이수 커리어를 가지고 이번 공모전에 참여했습니다. ‘드림스타그램’은 제가 1학년 때부터 했던 활동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인스타그램에 저의 이야기를 담아본 것인데, 그동안 해왔던 과제들, 연습했던 상담실습, 교생실습 등의 활동들과 자격증 취득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넣고 느낀 점을 함께 적어 만들었습니다.



Q. 이번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좋았던 점이나 도움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A. 인스타그램에 매일매일 업로드 하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했던 순간들이 생각나 뿌듯하기도 했고, 앞으로의 시간들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경력들을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계획도 더 구체화시킬 수 있었고, 이번 기회가 저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교사나 교직을 고민하는 학우들이 제 커리어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Q. 다음에 이와 같은 공모전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A. 제 꿈을 소개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부담이 많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꼭 한번은 나의 커리어를 모아보고 싶었고, 소개해 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정하고 준비한다는 게 정말 막연하면서도 힘든 일이지만, 이렇게 학교에서 기회를 통해서 저를 펼쳐볼 수 있어서 그만큼 알차고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자신의 꿈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생각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How to 학습법

01. 소개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 27일 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되었다. 교육혁신단에서 주최한 특강으로 오프라인에서 먼저 진행 되었으나, 개인일정 등으로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히 온라인 강의로 제작되었다. 강의 구성은 텍스트 읽기(How to Read), 리포트 작성법(How to Write), 프리젠테이션 방법(How to presentation) 이 3가지 주제로 구성 되었으며, 이를 정상적으로 수료한 학생은 20마일리지를 적립 할 수 있다.



02. 내용

모든 강의는 최인선 교수님께서 진행하였다. 또한 모든 강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e-Class에 접속하여 비정규과목에 개설된 How to 학습법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다.

1) How to read

강의는 읽기란 무엇인가의 대답인 독자와 필자 간의 의사소통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정보와 내용을 명확하게 읽는 방법인 사실적 읽기, 내용을 추론하여 읽는 추론적 읽기, 정확하고 합리적인 논리로 고찰하는 비판적 읽기, 개성적인 시각으로 읽는 창의적 읽기 방법에 대해 강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읽기의 의미와 통합적인 방법들에 대해 배울 수 있다.

2) How to Write

리포트는 대학생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다. 그만큼 리포트는 대학생에게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강의는 리포트의 다양한 의미와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 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개론적인 강의이다. 그리고 인문학 분야의 보고서 작성법과 각주 작성법, 올바른 인용법등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배울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대학생활을 앞둔 신입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How To Presentation

마지막 세 번째 강의에서는 발표의 의미와 발표, 발표문의 구성, PPT의 구성까지 전반적인 발표의 과정에 대해 배워볼 수 있다. 또한 발표는 발표자와 청중 간의 양방향 의사소통이며, 이 양방향 의사소통 상황에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법과 발표 분위기 조성 등 발표자로서 해야 할 일과 방법들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

03. 정리

대학생이라면 필수적인 세 가지 주제로 이루어진 강의이다. 아쉽게도 수료 후 마일리지를 지급해주는 기간은 지났지만, 여전히 e-class를 통하여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수강하지 않은 학생도 서둘러 강의를 들어보길 바란다.



삼육 BOOK Story

도서 톡톡 공모전



01. 소개

최근 삼육대학교 스미스학부 대학에서 제5회 삼육 BOOK Story 도서 톡톡 공모전을 진행하였다. 도서 톡톡 공모전은 <삼육 도서 100선> 중 자신이 원하는 도서를 선택하여 책 소개, 독서를 통해 변화된 모습, 독서 관련 에피소드, 독서 문화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긴 주제를 스피치를 통해 UCC로 제작하여 제출하는 공모전으로 연 2회(1학기, 2학기) 진행하고 있다. 주제가 자유로운 편이어서 학생들에게 부담이 적고, 접근성이 높아 2017년부터 꾸준히 진행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영상은 5-10분 이내의 분량으로 순수창작물이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심사기준으로는 기획의 우수성, 주제의 명확성, 발표능력, 기술적 완성도가 있다.

02. 수상작 소개

이번 2019년 2학기에 진행된 삼육 BOOK Story 도서 톡톡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조원상(상담심리 14) 학생의 작품을 소개한다. 조원상 학생이 선택한 책은 존 롤즈의 '정의론'이고, 스피치의 주제는 '책에 대한 소개'이다.

영상의 초반 부분은 '정의론'을 소개하기에 앞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대해 이야기하며 흥미를 유발한다. 또한 이론의 배경이 되는 공리주의와 그 한계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하여 본론의 이해도를 높였다.

영상의 중반에서는 존 롤즈의 정의론의 두 가지 원칙에 대해 설명하였다. 첫 번째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 두 번째는 차등의 원칙이다. 이 원칙들이 성립되기 위한 개념인 무지의 베일에 대해 함께 설명하고 이에 대한 쉬운 예시를 들어 책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하였다. 또한 위의 내용을 학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시로 접목시켜 존 롤즈의 이론이 우리의 실생활 곳곳에 녹아들어 있음을 알려준다.

영상의 후반에는 “정의는 아직 정의 내려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정의내려지지 않을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존 롤즈의 이론이 모두 옳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 정의에 대한 발견이 이루어져가는 가운데 ‘정의론’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고찰의 과정과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라는 추천과 함께 영상을 마무리 하였다.

03. 수상자의 추천 한 마디

Q. 학우들에게 추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도서 특목 공모전 뿐 아니라 여러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했었습니다. 비록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그 시간들이 절대 헛되지 않았고 오히려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다보면 그 경험들이 다음에 뒷받침이 되어 수상기회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SUTORY_사전 평가단

01.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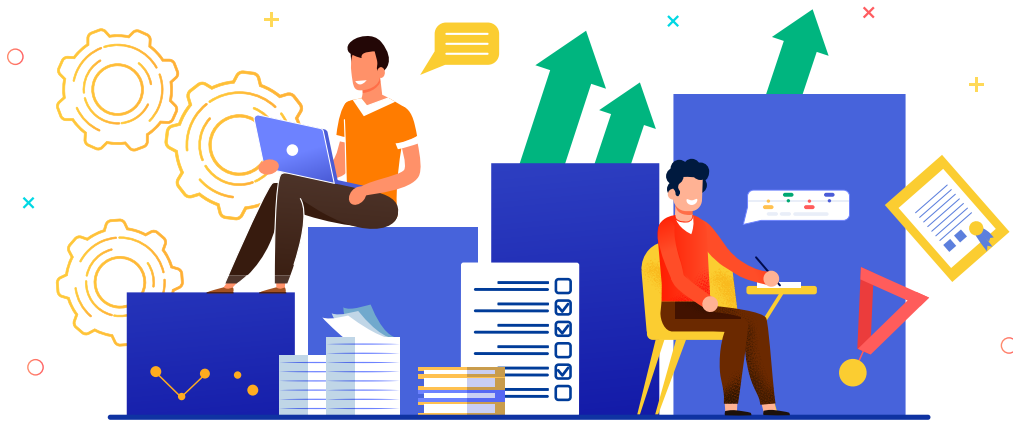
우리 학교 교육혁신단이 온라인 포트폴리오의 원활한 환경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SUTORY 사전 평가단'이라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지난 9월부터 약 40일 동안 진행하였다.

SUTORY는 삼육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여 개발된 국내 최초 학생참여주도형 온라인 포트폴리오이다. 사전 평가단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수 있으며, 제작된 포트폴리오는 총 3개의 공모전에 자동응모된다. (단, 3가지 공모전은 별개이며 참여 및 상금 수혜가 중복될 수 있다.)

SUTORY 사전 평가단은 총 3가지의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첫 번째는 SUTORY에 수시로 접속하여 테스트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혁신단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수토리 활동 만족도 응답 및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수토리 사전 평가단은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 최소 10개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야 한다.



02. SUTORY 사전 평가단 활동 후기



건축학과 18학번 ● 박진아

Q.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제가 다니는 건축학과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것이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습관화 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작품들을 정리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때마침 대학생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취업에 필요한 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SUTORY의 사전 평가단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수투리에 주로 어떤 종류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나요?

A. 저는 한 건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배운 전문적인 지식들을 다른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기숙사에서 진행한 생활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이용하는 프로젝트의 진행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도 추가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이나, 다른 교양 수업에서 진행했던 영화 대사 등 사소한 것들도 편하게 올렸습니다.



Q. 이번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좋았던 점이나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A.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저의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글도 보면서 영감도 받고 다른 과에서는 어떤 수업을 하는지 사진과 설명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색다르게 느껴졌습니다.

Q. 비교과 프로그램을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노하우가 있나요?

A. 우선 저는 SUTORY 사전 평가단을 신청하기 전에, 이 공모전을 잘 해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의 체험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SUTORY 사전 평가단이 저에게 잘 맞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때문에 저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분들이 자신에게 잘 맞는 프로그램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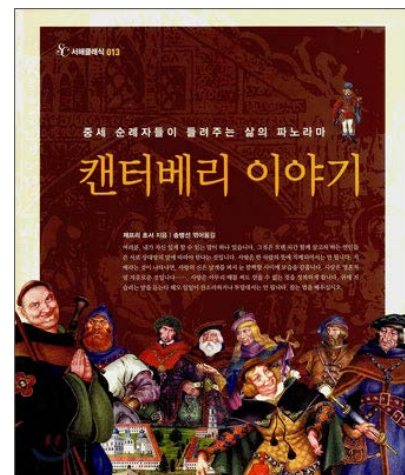
삼육도서 100선 프로젝트

01. 소개

우리 학교는 ACE+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해 9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60일에 걸쳐 <삼육도서 100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삼육도서 100>으로 선정된 도서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책을 선택하여 읽고, 즐거리를 토대로 저자나 등장인물, 자신의 가족과 친구 등에게 편지를 쓰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선, 대상 한 작품 (50만원), 우수상 두 작품 (40만원), 장려상 세 작품 (30만원)으로 총 6개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심사기준은 주제의 명확성, 전달 내용의 설득력 총 두 가지이며, 각 영역별로 점수를 환산하여 총합이 높은 순으로 수상작이 산출되었다. 다음장에서 대상 수상작에 대한 소개가 이어질 것이다.

대상이 선택한 그책

『캔터베리 이야기』 저자: 제프리 초서 (Geoffrey Chaucer, 1342~1400)
『캔터베리 이야기』는 중세 영국의 문학 작품이며, 당시 사회의 모습들을 시인이 다양한 인물들의 모습을 빌려 이야기를 전달하는 작품이다. 책의 제목이 ‘캔터베리 이야기’인 이유는 책 속에서 이야기하는 인물들이 남부 영국의 캔터베리 대성당을 참배하는 순례자이기 때문이다. 책 속의 순례자들은 당시 중세 시대에서 다양한 계층에 속해있는데, 기사와 젊은 무사, 여자 수도원 원장과 사제, 법률가, 시골 사제, 탁발 수도사, 면죄부 팔이 의사 등등 다양한 인물들이 책 속에 등장한다. 이 중에선 작자 자신도 사회 계층 중에서 한 명으로 나타나 이야기하기도 한다.





커리어 로드맵 특강

01. 소개

최근 삼육대학교 취업진로지원센터에서 11월 19일에 커리어로드맵 특강을 진행하였다. 커리어 로드맵 특강은 재학 중 주로 1학년 학생들의 인생설계와 진로 I 수업을 통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인생설계와 진로 I 수업은 1학년 신입생들이 우선적으로 수강하며, 학과 교수님과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명확한 진로 방향 설정과 체계적인 대학생활 설계를 위해 만들어졌다. 그 중 커리어 로드맵 특강은 지도 교수님께 과제로 제출 될 만큼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커리어 로드맵 특강은 총 41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으며, 총 3시간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은 프로그램을 맡으신 오준상 선생님의 인터뷰에서 이어질 것이다.



02. 담당자 인터뷰

Q. 선생님께서 일하시는 부서, 부서의 위치, 하시는 일 등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제가 일하고 있는 부서는 대학일자리본부 취업 지원 센터입니다. 위치는 학생회관 2층, JOB카페 맞은편입니다. 저희 대학일자리본부는 창업지원단과 취업진로지원센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취업진로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일자리본부는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과 창업이라는 부분에서 운영 및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생 설계와 진로 탐색 I&II> 수업도 그 중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개설하여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고 있습니다. 그 외 취업 및 창업 교과목으로 <NCS직업기초능력의 이해>, <취업 정보 분석과 입사 전략>, <여성 비전과 미래 직업>, <크리에이터창업> 등 다양한 수업을 개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제가 지금 담당 하고 있는 일은 학생경력관리제도(마일리지)와 취업 교과목을 맡아 관리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뉴딜 정책을 맡아 졸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취업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등 크게 세 가지의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Q. 선생님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드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2학년 2학기가 되어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뚜렷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졸업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데 남학생들은 군대를 가고, 여학생의 경우에도 자격증이나 시험 준비 등으로 진로에 대한 실제적인 계획을 알아볼 기회가 많지 않아, 졸업 직전이 되었을 때, 취업과 진로에 대해 막막하게 느끼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대학 생활의 절반을 지나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진로와 미래에 대한 확실하고, 현실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진로에 대한 기반을 세워주고 싶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Q. 이 프로그램을 추천해주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신가요?

A. 학교는 학생들에게 울타리의 역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는 학생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으나, 울타리 밖을 나가면 바로 사회이기에 미처 준비되지 못한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 힘들어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고, 미래에 대해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적극 참가해주길 바랐습니다. 참가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사회에 가까운 계획과 인식을 세워주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면 보다 진로에 대해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좋았다고 많이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 QR코드를 통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였을 때, 저희가 목표한 프로그램 전반적인 만족도 기대치는 75%였는데, 산출된 만족도는 90%에 가까운 수치로 조사되어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삼육대학교 학생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A. 저도 학교를 다닐 때엔 취업 센터의 존재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졸업하고 지금은 취업 센터에서 일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취업에 대한 도움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 그때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을까 아쉬움이 많습니다. 학기마다 새롭게 열리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있고, 또 센터엔 진로와 관련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컨설턴트 선생님들이 상주하고 계셔서 충분히 만족할만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일리지를 비롯하여 삼육MVP 장학금 등 많은 장학 혜택들이 여러분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학생 여러분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